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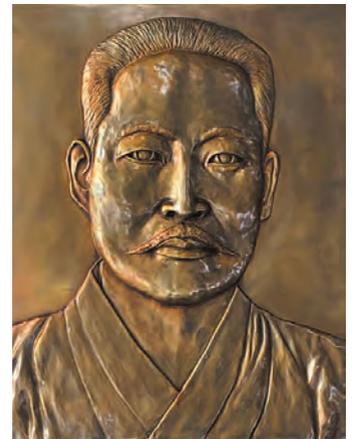
10
2020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이제는 재외동포에게 조국 역할 하겠다” 문 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SNS로 인사
 화제 _ 항일독립군의 가장 빛나는 승리, 올해 100주년 맞은 청산리 대첩
 초점 _ ‘평화의 수도’ 베를린에 등장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받았다가 시민 도움으로 기사화생



재외동포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마다 10월에는 세계 한인의 날을 전후하여, 한국에서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아쉽습니다. 직접 만나뵙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우선 지면을 통해 동포 여러분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국민과 정부가 단합하여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진 의료 및 행정 시스템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연대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에 동포사회의 따뜻한 지원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데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의 동포들께서 보내주신 방역물품과 성금 등을 통해 따뜻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국도 동포사회의 온정에 화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귀국을 희망하는 많은 분이 국내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현지 한인회와 힘을 모아 취약계층 동포들을 지원하였고, 한인 입양인 가정에는 마스크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동포 여러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영사민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와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영사조력법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재외동포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조국과 동포사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잘 이겨냅시다. 동포 여러분 곁에는 우리 정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창**





- 02 권두언 재외동포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04 특집 "이제는 재외동포에게 조국 역할 하겠다"
- 06 화제 항일독립군의 가장 빛나는 승리, 올해 100주년 맞은 청산리 대첩
- 08 초점 '평화의 수도' 베를린에 등장한 '평화의 소녀상'
- 10 글로벌 코리안 미국 토목공학회 '프란시스 터너상' 받는 김영수 교수
중국 최고 권위 과학기술상 받은 남기학 회장
5선 고지에 오른 뉴질랜드 한인 국회의원 멜리사 리
- 12 한민족 공감 해외 한국어 매체 일꾼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포연론 역할 모색
- 13 주목! 차세대 '슬기로운 호주 간호사 생활' 펴낸 손정화
- 14 동포소식 과테말라 국제공항 안내 표지판에 한글 등장 외
- 17 동포 캘린더 아프리카·중동 한상 총연합회 2대 회장에 김근욱 짐바브웨 한상회장 외
- 18 유공 동포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개척한 장윤원
- 19 동포문학 감보자 꽃
서미숙 인도네시아
- 20 지구촌 통신원 1 100년 만에 빛 본 한국 첫 로마 유학생 기도문
- 21 지구촌 통신원 2 푸드 코트로 파고든 중국의 복한 식당
- 22 광장 "그동안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잘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교육과정평가원과 교과서에 재외동포 수록방안 협의 외
- 26 기고문 K중이접기 세계화는 새 한류 창조 문화로,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노영혜 중이문화재단 · 세계중이접기연합 이사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에게 조국 역할 하겠다” 문 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SNS로 인사 정 총리도 격려 메시지… 기념식은 12월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내국인에게도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2007년에 정부기념일로 제정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한국 농업이민자 102명을 태운 배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이 모태가 됐다. 이후 세계 한인의 날 제정 청원이 이어졌고, 정부는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 재외동포재단 창립일(10월 30일), 구한말 이민청 격인 수민원 설치일(8월 20일) 등을 검토하다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이 있는 주간의 10월 5일로 정했다.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에게 훈장과 표창

을 수여하는가 하면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비롯한 관련 행사를 펼쳐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한인회장대회를 12월로 미루고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 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해외의 봉쇄 국면 속에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안전한 귀국과 현지 복귀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재외동포 확진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 여러분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힘쓰고, 동포 한 분 한 분의 현지사회 적응과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국민훈장 서훈자 명단이다(가나다순).



3

- ▲무궁화장 = 하기환(LA 한민상공회의소 이사)
- ▲모란장 = 고 서세모(서세모/서필립클리닉 병원장), 서주일(나사렛종합병원 원장), 왕청일(재일민단 교토부 지방본부 상임고문)
- ▲동백장 = 권순기(중국 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백승국(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오광현(특별비영리법인 성공회 이쿠노센터 총주사), 유미 호건(메릴랜드주지사 부인), 임마철(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최석호(캘리포니아주의회 하원의원)
- ▲목련장 = 강희중(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고문), 김운영(홍콩한인회 고문), 오영석(사단법인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명예회장), 윤희(주해송 회장), 이병환(재아르헨티나한인회 고문), 이상모(하노이한인회 자문위원), 이희정(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교장)
- ▲석류장 = 김점배(오만한인회장), 김주진(시카고한인회 이사장), 고 오찬익(전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원종성(에이치원 대표), 이덕호(청도한국인(상)회 회장), 이은자(미션아가페 부회장), 조신구(전 레딩 한인회장), 하상언(NBS Co. 대표) **창**



4

1.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동포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국 우한의 한인 의사와 통화하며 격려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대회 공동의장인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왼쪽)과 강인희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회장(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가운데)이 2019년 10월 4일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대회 공동의장인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왼쪽)과 강인희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회장(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여러분께 안부를 여쭙니다.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보지 못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깊어졌는지 헤아려 봅니다.

세계 193개국 750만 동포들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내주셨고, 조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누어 오신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포들은 코로나에 맞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지난 3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현지 동포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의 병원과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동포들도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도 동포 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탤습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보건의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코로나에 취약한 동포 어르신과 고령의 참전용사들, 한인 입양인 가정에 방역물품을 전해주었습니다. 특별전세기와 공공 수송기, 공중급유기까지 투입해 귀국을 원하는 120개국 4만 9천여 명의 재외국민을 무사히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일깨웠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 진단역량 강화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창**

항일독립군의 가장 빛나는 승리 올해 100주년 맞은 청산리 대첩

일본군 보복으로 동포 주민 희생된 경신참변도 기억해야



1



2



3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펼쳐진 청산리 전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군이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청산리 전투는 그해 6월의 봉오동 전투, 1933년 대전자령 전투와 함께 항일 독립군 3대 대첩으로 꼽힌다.

청산리 전투 100년을 맞는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광복운동지회(회장 김영관) 주관으로 '한국 독립군 3대 대첩 제100주년 기념식'이 펼쳐졌다. 기념식에는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하이(上海)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 열기가 한껏 높아졌다. 이러한 기운과 함께 만주에는 만세 시위에서 더 나아가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하는 독립운동 세력이 집결했다.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신홍무관학교와 사관연성소가 세워지고, 10여 개로 갈라져 있던 독립군 부대도 연합해 규모를 키웠다.

국내 진공작전도 활발하게 펼쳐지자 일본군은 독립군을 추격하려고 압록강을 건넜다가 1920년 6월 6일과 7일 봉오동에서 홍범도와 최진동이 이끄는 부대에 대패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를 편성했다. 함경북도 남의 19사단 대부분과 서울 용산의 20사단 일부, 러시아 연해주에 주둔하던 부대까지 2만5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일본, 훈춘사건 조작해 대규모 병력 만주 진출

당시 만주의 실력자인 군벌 장쥘린(張作霖)은 일본군의 만주 진출을 불허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중국인 마적단 두목을 사주해 훈춘(琿春)의 일본영사관 방화 약탈 사건을 일으킨다. 그리고는 이를 구실로 삼아 10월 초 병력을 출동시켰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은 이범석 장군과 부대를 나눠 청산리 백운평 계곡 양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10월 21일 이곳을 지나는 일본군 5천여 명을 궤멸시켜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북로군정서는 밤새 갑산촌으로 이동했다가 일본군 기병대가 천수평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튿날 새벽 기습했다. 이도구 어랑촌에 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21일 밤부터 22일 아침까지 게릴라전으로 일본군 수백 명을 공격했다.

최대 승부처는 일본군 5천 명과 독립군 2천 명이 격돌한 22일 어랑촌 전



투였다. 하루종일 공방전을 벌인 끝에 미리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독립군이 승리를 거뒀다. 김좌진·홍범도 연합부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소부대로 나눠 이동하면서 맹개굴, 만기구, 쉬구, 천보산 등지의 일본군을 섬멸했다.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고동하 전투를 끝으로 6일간의 대전투는 막을 내렸다.

일본군 전사자 1천여 명… 독립군 피해는 10분의 1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전사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을 비롯해 1천257명이고 부상자는 200여 명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중국의 랴오둥(遼東)일일신문과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일본군 2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영사관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사상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소대장 9명, 병사 800여 명이었다고 한다.

독립군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임시정부는 전사자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으로 집계했다. 전투에 참여한 이범석 장군은 회고록 '우등불'에 전사 60여 명, 실종 200여 명, 부상 90여 명으로 기록했다.

독립군이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독립군이 지형을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한 반면 일본군은 독립군을 만만하게 봤다. 당시 독립군은 체코군으로부터 사들인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고성능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군의 열망과 동포 주민들의 헌신적인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우등불'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됐다. 굶주림을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서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동지들 입에 넣어 주었다." 목숨을 건 동포들의 응원이 부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높였음은 물론이다.

일본군은 청산리 패전 양감음으로 인근 마을을 돌며 동포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를 '경신참변'이라고 부른다. 10월 30일 용정촌의 기독교마을 장암동에서는 남자 33명을 교회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다. 만주판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암동 학살사건이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만주에 사는 한인 3천693명이 학살당했고 민가 3천288채, 학교 41개교, 교회 16곳이 불에 탔다.

청산리대첩기념비 건립취지문 최근 사라져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삼도구 청산리에는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가 서 있다. 국가보훈처 협조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허룽시 협조로 2001년 조성된 높이 17m 60cm, 너비 25m 크기의 비석이다. 뒷면에는 청산리 전투의 빛나는 전과와 경신참변의 참상, 한국과 중국 인민이 힘을 합쳐 건립한 취지 등을 새겨놓았다.

그러나 최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뒷면의 건립 취지문은 누군가 떼어낸 상태였다. 청산리 전투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념비 주변은 곳곳이 훼손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동포는 "중국 당국이 항일 운동 역사를 공산당 위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주도한 청산리 전투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건립취지문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사드 배치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한국인 순례객이 이곳을 찾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

1.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이린(海林)시 한중우의공원 내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관에 기증한 김좌진 장군 얼굴 부조.
2.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에 세워진 청산리 전투 기념비.
3.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독립군 부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일인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독립군 3대첩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평관 한국광복운동지회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5.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독립군 3대첩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평화의 수도’ 베를린에 등장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받았다가 시민 도움으로 기사회생

일본의 전방위 압력 일단 무산... 전화위복 계기 될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도시여서 ‘세계의 평화 수도’로 불린다. 그런 점에서 전쟁 범죄 규탄과 여성 인권 보호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평화의 소녀상’이 이곳에 들어선 것은 뜻깊은 일이지만, 며칠 만에 위기에 놓였다. 일본이 한·일 간 갈등의 상징물로 지목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9월 25일 베를린시 미테구(區)에 등장한 ‘평화의 소녀상’은 김서경·김운성 부부의 작품으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의 조각상과 똑같은 모양이다.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설치 작업을 주도했고 정의기억연대가 제작을 지원했다.

설치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교차로여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과 올해 3월에 소녀상이 들어선 비젠트의 네팔 히말라야 공원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는 모두 사유지였다. 그런데 이번 장소는 공공의 장소이다.

오가는 시민들, 소녀상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 보여

베를린에서 역사 관련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예술성도 있어야 한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국가 간 논란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과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소녀상 건립안은 올해 초 베를린 도시공간문화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7월에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독일 연구자와 현지 여성·예술인 단체 등이 도움을 줬다. 심사 과정에 지역주민의 여론도 반영되기 때문에 코리아협의회는 인근 음식점 운영자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소녀상이 세워지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했다. 꽃, 화분, 인형 등을 놓고 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보는가 하면 바닥에 새겨진 비문을 유심히 읽기도 했다. 인근의 코리아협의회 사무실에 찾아와 작은 소녀상 복제품을 살 수 없는지 문의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고, 모테기 외무상은 하이코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를 요청했다. 주독일 일본대사관도 베를린시에 압력을 넣었다.





베를린 시민과 동포 300여 명 모여 철거 반대 시위

그러자 베를린시 미테구는 10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10월 7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내용의 비문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에 긴장이 조성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코리아협의회는 현지 4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 10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이튿날 베를린 시민과 동포 300여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13명, 광복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이재명 경기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 독일 기독교교회협의회, 베를린조형예술가연합, 일본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미테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간지 베를린타이퐁은 10월 13일 “국가 간 역사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미테구청의 논리라면 제국주의 시대나 식민지에서의 범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베를린 장벽 건설을 떠올려서도 안 된다”라고 반박한 뒤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 전쟁 책임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채, 자국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팎의 반대와 비판에 직면한 미테구청은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0월 13일 냈다. 슈테판 구청장은 “코리아협의회와 일본 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소녀상 해결 과정을 독일 시민사회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

일단 철거 위기에서 벗어나 시간을 번 셈이지만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은 아직은 알 수 없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 데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1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 구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절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문의 문구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소녀상이 반일 민족주의 관점에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를 비롯한 독일의 시민단체들은 감정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전쟁 시 여성 성폭력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다. 반일 구호도 외치지 않았으며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일간지 타게스차이퐁은 10월 14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자책골을 넣었다”면서 “독일에서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를 알리는 운동이 베를린 시민사회를 풍요롭게 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마련될 협의 과정을 소녀상 건립 취지의 홍보 기회로 활용한다면 철거 논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정화 코리아협회 대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독일의 역사로 만들고 싶다”면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 베를린 시민과 동포들이 10월 13일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2.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 10월 13일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3.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맺혀 있다.
4.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지나던 시민들이 옆에 새겨진 비문을 읽고 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김영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석좌교수

미국 토목공학회 ‘프란시스 터너상’ 받는 김영수 교수 도로 포장 재료 연구에 지대한 공로 인정받아

김영수(6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토목공학과 석좌교수가 미국 토목공학회(ASCE)가 시상하는 ‘2020년 프란시스 C. 터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ASCE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sce.org)를 통해 이 소식을 알렸다.

김 교수는 “올해 3월 선정 소식을 터너상 선정위원회로부터 편지로 받았고, 5월 ASCE가 주관하는 국제교통공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상을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19로 취소됐다”면서 “ASCE 측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시상식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SCE는 “김 교수가 도로 포장(鋪裝) 재료의 물성과 공용성 측정, 역학적 포장 해석과 설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개발한 역학 모델들은 미국 교통국에서 개발하는 공용성에 근거한 포장 설계법과 품질 보증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30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논문집에 올렸고, 저서 ‘아스팔트 재료 모델’은 아스팔트의 재료의 물성과 공용성 연구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졌다.

1852년 창립된 ASCE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학회로, 177개국 15만 명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다. ASCE는 미국 교통국 장관으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를 건설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프란시스 C. 터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89년 터너상을 제정했다. 그동안 토머스 라슨, 마이클 월튼, 쿠마레스 신하, 로버트 리턴, 이마드 알카디 등 미국 교통·포장공학계의 거장이 수상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 국내 대기업 건설사에서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중국 교육부로부터 창장(長江)학자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로부터 ‘알렉산더 켈즈 홀러데이 메달’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2015년 7월부터 1년간 제44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을 지냈다.

중국 최고 권위 과학기술상 받은 남기학 회장 광학렌즈 기술 독보적… 창업 20년 만에 10개 기업 일궈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남기학(59) 중국 예지아(燐嘉)광학기술그룹 회장이 ‘2020년 중국 과학혁신 우수 발명 성과상’을 받았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시(雞西)시 출신의 동포 기업인인 남 회장은 9월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회의중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특허 부문 성과상과 기업 부문 ‘중국 과학혁신 선진회사’ 대상을 각각 받았다.

중국 과학혁신상은 국가 차원에서 매년 한 차례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남 회장은 광학렌즈 부문 발명 특허로 올해 2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휴대전화, 카메라, TV 등 전자제품과 차량에 쓰이는 남 회장의 제품은 삼성, LG, 소니 등 세계 5대 전자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TV 백라이트 광학렌즈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이 1위다.



그는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등지에서 광학과 실리콘 회사인 광학전자기술유한공사, 게임기 등을 제조하는 전자기술유한공사 등 10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지아그룹은 광학기술 분야에서만 120개 이상 특허를 받았고, 발명 특허 2개와 함께 현재 신청 중인 발명 특허만 해도 22개에 달한다.

남 회장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 아버지와 함경북도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지 조선족 학교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허베이(河北)성에 있는 연산(燕山)대 자동제어학과를 졸업했다.

지시대학에서 5년간 강사로 일하다가 선전시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스카우트됐으며, 이 회사에서 7년 동안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2001년 예지아정밀플라스틱을 창업했다. 이후 2년에 한 개꼴로 자회사를 설립해 지금의 그룹으로 키웠다.

2009년 월드옥타에 가입했고, 2014년부터 상임집행위원(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수석부회장에 올랐다. 광둥성 조선민족연합회, 한중기업연의회 등 단체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기학 중국 예지아(燁嘉)광학기술그룹 회장

5선 고지에 오른 뉴질랜드 한인 국회의원 멜리사 리 “의정 활동에 노력해 동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

지난 2008년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방송인 출신 한인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54) 국민당 국회의원이 10월 17일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올라섰다. 리 의원은 오클랜드 마운트앨버트 지역구에서 노동당의 저신다 아던 총리와 맞붙어 패하긴 했으나 혼합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국민당 비례대표로 5회 연속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리 의원은 당선이 확정된 후 “뉴질랜드 국회에서 5선의 영예를 안게 돼 기쁘다”면서 “동포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리 의원은 “동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선거 홍보물을 돌리고 가정 방문을 하는 등 많은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뉴질랜드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이제 5년이 됐고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힘써온 그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리 의원은 “국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도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리 의원은 11살 때 부모를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뒤 호주에 유학했다. 1988년 뉴질랜드에 이민해 신문 기자, 방송 앵커 등으로 20년간 활약했다. 2008년 비례대표로 뉴질랜드의 첫 한인 여성 국회의원이 됐고, 2017년 4선에 성공해 그때까지 동포 역사상 최다선 국회의원이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3선 기록을 깼다. 국민당 집권 시절인 2011년부터는 다민족부 정무차관을 연임하기도 했다.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 뉴질랜드 국회의원



해외 한국어 매체 일꾼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포언론 역할 모색

제19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온·오프라인으로 열려

해외 한국어 매체 종사자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제19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10월 2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가 주최한 이날 개막식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행사장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한인 언론인 40여 명이 참석했고, 40여 개국 언론인 80여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했다. 협회에는 40여 개국 180여 개 한국어 매체가 소속돼 있다.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성곤 전 국회의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의장,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조성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등은 행사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설훈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전용창 회장과 정영수 총재는 각각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대회사와 환영사를 했다. 전 회장은 "한인 언론인들은 거주국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인 사회 협력과 결속을 견인하고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처음 치러지는 온·오프라인 행사 협회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 총재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인 언론인들은 지면과 방송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 설립 이래 현지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5천200만 내국인을 하나로 묶는 소통 창구로서 역



10월 2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서 내빈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전 국회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며, 한류 전파자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한인 언론인들이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한민족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고양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열린 제1회 세계한인언론인상 시상식에서는 경윤주 미국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과 표영태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정락석 프랑스 파리지성 발행인과 조윤경 독일 교포신문 기자에게 돌아갔다.

이튿날부터는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도 열려 김성호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 송은영 숭실대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지도교수,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이 강연에 나섰다. 이번 대회와 심포지엄은 10월 24일 사업 보고와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

“50개 병원 노크한 끝에 취업 성공했죠”

‘슬기로운 호주 간호사 생활’ 펴낸 손정화

국내 서점가에 ‘슬기로운 호주 간호사 생활’ (포널스출판사)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선보였다. 저자는 호주 브리즈번 로열병원의 폐암 연구간호사 손정화(40) 씨.

부산 대동대 간호학부를 졸업한 손 씨는 부산센텀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호주 간호사 인턴십에 지원했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뒤 호주로 날아갔다.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한 호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인턴십 주최 기관은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된 지원과 취업 연계를 해주지 않아 직접 발로 뛰며 50개 병원에 이력서를 내밀고 자신을 알려야 했다. 어렵사리 취업한 뒤에도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책 전반부인 1장 ‘청개구리 간호사 길들여지기’와 2장 ‘좌충우돌 호주 적응기’에는 자신의 표현대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고 싶었던 해외 취업 도전기와 눈치로 살아남은 애환이 담겨 있다.

손 씨는 “혼자서 모든 걸 헤쳐 나가야 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감내했다”면서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손정화’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책 출간 동기를 밝혔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독자들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낯설고 물 선 미국땅에서 적응하느라 힘



‘슬기로운 호주 간호사 생활’을 펴낸 호주 로열병원의 연구간호사 손정화 씨.

겨워 하는 독자들은 ‘나만 이토록 힘들어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길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손 씨는 “원고를 교정하면서 ‘나중에 엄마가 책을 보시면 많이 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초년 간호사 시절 선배들이 후배를 혹독하게 길들이는 이른바 ‘태움’을 당한 이야기라든지 호주에서 돈이 없어서 김빠진 레모네이드를 사먹거나 호주 할머니에게 틀니로 맞은 경험 등을 미리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처럼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서 타지 생활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신입 간호사로 힘들어 할 후배들이나 호주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차세대 한인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3장 ‘로열 간호사’와 4장 ‘업그레이드, 연구간호사로 일하기’에서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호주 병원의 문화와 분위기, 호주 간호사들의 직업관 등도 접할 수 있어 국내 의료계와 의료진에게도 참고가 될 듯하다.

책 말미에는 번외편으로 ‘해외 노동자 엄마의 고군분투 호주살이 이야기’도 수록했다.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 손 씨의 경험담과 함께 호주의 자녀 교육과 부동산 정보가 틈으로 실려 있다. **창**

과테말라 국제공항 안내 표지판에 한글 등장 스페인어·영어와 함께 표기... 한글 서류 견본도 부착

중남아메리카 과테말라의 관문인 국제공항에 한글 표지판이 등장했다. 수도 과테말라시에 위치한 라우로라 국제공항은 지난 9월 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하물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 표기를 추가했다.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했다.

라우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일시 폐쇄됐다가 9월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다.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공항 안내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테



과테말라 라우로라 국제공항의 안내 표지판에 '심사', '세관', '수하물', '연결편' 등의 단어가 한글로 적혀 있다.

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에는 한인 동포 5천501명(2019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 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과테말라 민간항공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하고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1962년 한국과 수교했으며 북한과는 수교하지 않았다. 중남아메리카 5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다. 2007년부터 한국 TV드라마가 방송돼 한류 열풍이 불고 있으며 한국의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인도네시아 재난청, 한국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감사패

단체·기업 등 60개 기관에 전달... 중국·호주도 함께 받아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BNPB)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을 준 한국 정부·기업·국민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60개의 감사패를 제작, 10월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은 자국 주재 외교단 가운데 한국, 중국, 호주 등 3개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총 100만 달러(약 12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올해 4월 재난방지청을 통해 분무형 소독기 300대(10만 달러)와 유전자 증폭검사(PCR) 진단키트 3만2천200회 분량(40만 달러)을 제공한 데 이어 7월부터 KF-94 마스크 62만5천장(50만 달러)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 관계자가 10월 13일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대응 지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무거워도 함께 짊어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방역용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LG전자 등 LG그룹 4개사가 한국산 PCR 진단키트 5만 회 분량,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이 3만 회 분량, 자카르타 외곽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드라이브 브루 진료소와 방역복 5만 세트를 각각 기부했다. 포스코, 중부발전, 신한금융그룹 등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도 방역복 등을 잇달아 지원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복판에 울려 퍼진 K-POP

현지 방송사, 제1회 '한국의 날' 행사 3시간 생중계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하기 위해 10월 10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앙혁명광장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처음 열렸다.

가장 관심을 끈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가 마련한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였다. 극동 78개팀(419명) 가운데 예선 관문을 뚫은 15개팀이 BTS, 마마무, 세븐틴, 트와이스 등 한국 인기 가수의 노래에 맞춰 그동안 같고닮은 춤 솜씨를 뽐냈다. 우승팀은 내년 서울가요대상의 식전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

제1회 한국의 날 행사에는 오성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와 올렉 코쨬야코 연해주 주지사를 비롯해 권 바체슬라프 아르투스 시장, 발렌틴 박 고려인연합회장, 니콜라이 김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회 '한국의 날' 행사 가운데 레이저쇼 순서에서 도심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등장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무관중 방식으로 진행됐는데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이 몰려와 한때 붐비기도 했다. 무대 공연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나 관중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해주 공영방송사인 OTV가 3시간에 걸쳐 행사 실황을 생중계했다.

행사장에서는 K-POP 댄스대회와 함께 현지 공연단 해동의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졌고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을 소개하는 부스도 꾸며졌다. 저녁에는 BTS 등 한국 아이돌가수 노래에 맞춰 레이저쇼가 진행되었으며, 불꽃놀이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오성환 총영사는 "한국인에게 연해주는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면서 "한·러 양국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유관순상 수상자에게 모국 역사·문화 탐방 지원

천안시·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과 협약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가 주관하는 유관순상 수상자들이 내년부터 모국을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에 나선다. 충남 천안시와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10월 14일 영상으로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과 유관순상 수상자 지원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맺었다.

나소카운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운동'을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3·1운동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유관순 전기(영문판) 독후감을 공모해 우수작 수상자 2명에게 유관순상을 시상했다.

뉴욕한인회장을 지낸 뒤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선 나소카운티 인권국장은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과 애국



10월 14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관순상 수상자 지원사업' 공동이행 협약식. 왼쪽부터 김동복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김민선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장, 박상돈 천안시장.

심은 미국 학생들도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과정에 넣고 유관순상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은 뉴욕주 나소카운티 주관으로 매년 3·1운동의 날 기념식에서 유관순상을 시상한다.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수상자 1인당 장학금 1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방학 기간 수상자들을 초청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탐방을 지원할 예정이

다. 올해 탐방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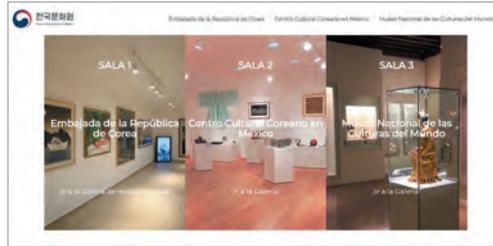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미국에 사는 한인 차세대들이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한국 현대 미술과 문화유산 감상하세요”

주멕시코 대사관·문화원 사이버 전시관 개설... VR 전시도 마련

멕시코 곳곳에 있는 한국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주멕시코 대사관(대사 서정인)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한국 작가들의 미술품과 전통 공예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http://www.kgaleriavirtual.org>)을 열었다.

전시관은 모두 3개의 전시실로 이뤄졌다. 제1전시실은 주멕시코 대사관과 대사관저의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주로 한국 작가들의 현대 회화 작품으로 채워졌다. 제2전시실에선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에 전시된 전통 회화와 의복, 악기 등을 선보인다. 제3전시실은 멕시코 국립문화 박물관에 별도로 설치된 중남미 유일의 한국실을 그대로 옮겼다. 전통 가구, 악기, 그릇, 도자기, 불상 등 한국의 옛 문화와 생활



주멕시코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개천절을 맞아 개설한 온라인 전시관.

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품마다 상세한 스페인어 설명이 제공되며, 특히 제1전시실은 가상 현실(VR)로 구현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나머지 전시실도 점차 VR 전시실로 꾸밀 계획이다.

대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멕시코에 있는 우수한 한국 미술품을 현지인들에게 알릴 기회가 줄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앞으로 전시실에 작품을 추가해 볼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 전시실도 마련해 멕시코인과 현지 한인들에게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화랑청소년재단 “모국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영어 가르쳐줍니다”

실리콘밸리지부 동포 고교생들 앞장... 일본 조선학교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 회원들이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모국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에 나섰다.

100% 영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생한 미국식 영어를 학교 교사가 아닌 형이나 누나, 또래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장점이다.

박윤숙 총재는 “재단 산하 실리콘밸리지부는 지난 6월 성남청소년재단과 온라인 영어 튜터링을 시작했고, 서울시 구로구 천왕마을 도서관연합회와 서울 노원구 공연초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부속 무학교등학교와도 온라인 영어회화 수업을



화랑청소년재단의 로빈 박 글로벌커뮤니티 회장이 모국 학생들과 온라인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지바현의 조선학교 학생들과도 펜팔을 겸한 영어 학습 지원에 나섰다.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로빈 박(10학년, 고1) 글로벌커뮤니티 회장은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며 대화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과 보람이 있다”면서 “첫 온라인 수업에서 수줍고 용기가 없었던 한국 학생들 또한 수업을 거듭하며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고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공연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송지민(11학년, 고2) 학생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관심과 열의에 놀랐고, 학부모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도 순조로워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이 새삼 흥미롭다”고 털어놓았다. **[참]**



아프리카·중동 한상 총연합회 2대 회장에 김근욱 짐바브웨 한상회장

아프리카·중동 한상 총연합회는 10월 9일 제2대 회장으로 김근욱 짐바브웨 한상회장을 선출했다. 약 8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아·중동 한상 총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으로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활용해 임시총회를 열었으며, 신임 회장 투표를 진행했다. 김근욱 회장은 SNS에 올린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 광풍으로 안팎에서 안정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으로 믿고 힘내시길 바란다”면서 “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밑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한인 차세대에 '빅데이터' 특강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10월 19일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차세대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빅데이터 공통의 경험, 현명한 합의를 펼쳤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소셜 빅데이터 속에 담긴 의미,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한 사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 제안 등을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고려대와 고려대 대학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며 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빅데이터 전도사'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학과 방송 등에서 활발한 경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란바토르서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양국 연대로 코로나19 극복”

주몽골 한국대사관은 10월 8일 울란바토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축사에 나선 야 서드바타르 몽골 부총리는 “몽골의 '제3의 이웃'으로서 중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30년 전 냉전의 장벽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장벽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조속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개소… “신남방 한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신남방 지역의 한류 콘텐츠 진출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8일 하노이에 '콘진원 베트남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박노안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파광동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콘진원과 현지 주요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이뤄졌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베트남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등 현지 관계 기관들과 함께 연관 산업 동반성장 등 문화·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잠비크 한인교회, 기아대책과 함께 10년째 빈곤 가정에 식량 지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마푸투한인교회와 국제구호개발단체 기아대책은 10월 16일 마푸투 취약계층 500가정에 식량 키트를 전달했다. 이 키트에는 쌀 10kg, 옥수수 씨앗·가루 각 2kg, 식용유, 설탕, 소금, 과자, 비누 등 생필품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담겼다. 주모잠비크 한국대사관, 마푸투한인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가스공사 등과 한인 기업들도 동참했다. 모잠비크 국영 방송 TVM과 현지 인터넷 방송은 10년째 한인교회가 펼치는 이번 나눔 행사를 보도했다.



주남아공대사관, 롯데 후원으로 참전용사 후손 30명에게 장학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10월 5일 본관 아리랑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30명에게 롯데그룹이 후원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아공대사관은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지 6개월여 만에 이날 처음으로 공식행사를 열었다. 이어 열린 개천절 기념식에서 박종대 대사는 “남아공은 한국전 참전국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사는 나라”라며 “남아공이 이달부터 소수의 무비자 입국 재개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은 방역 모범국 한국을 신뢰한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개척한 장윤원

3·1운동 때 독립운동 자금 지원하다가 망명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9월 20일로 100주년을 맞았다. 이민자 1호 장윤원 선생은 1920년 이날 네덜란드령 동인도 자바섬 바타비아(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1910년대 조선의 인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다녀가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결혼해 정착한 한인은 그가 처음이었다.

장 선생은 중추원 의관을 지낸 장석찬의 외아들로 1883년 태어났다. 일본 도쿄제국대학 상과를 졸업한 뒤 귀국해 은행에서 일하며 사재를 털어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은행 돈을 빼돌려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됐다.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부인 백씨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그해 4월 중국 만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망명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당시 그곳을 지배하던 네덜란드 총독부의 일본어 수석통역관으로 일했다. 1921년에는 화교 여성과 재혼해 2남3녀를 두었다.

1942년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장 선생과 장남(장남해)을 붙잡아 고문하고 감옥에 가뒀다.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해 감옥에서 풀려난 장 선생은 재자바 조선인민회 출범을 돕는 등 동포를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7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윤원 선생은 자카르타 뽀독인다에 잠들어 있다. 묘비에는 이름이 한자(張潤遠)와 영어 표기(CHO JUN EN, 張潤遠의 일본식 발음)로 새겨져 있다. 병으로 요절한 차녀(장방기)와 부인도 합장돼 있다.

차남 장순일은 1960년 가톨릭계 대학 아프마자야의 공동 설립자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 대학의 초대 공대 학장과 재단 부이사장을 지냈다. 막내딸 장평화는 한국총영사관 직원으로 채용돼 1971년 한국을 방문하고, 1974년 한국인 외교관과 결혼해 2016년 숨질 때까지 한국에서 살기도 했다. 남편은 여한중 전 파푸아뉴기니 대사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9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동영상 제작했다. 성대한 기념식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대



자카르타 뽀독인다에 잠들어 있는 장윤원 선생의 묘비(위). 장윤원 선생 부부가 아들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면 행사를 취소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10월 말 출간 예정인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에는 장윤원 선생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축하 인사에 나선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기 전에 이미 한인들이 살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매우 가까웠음을 의미한다”면서 “한인 이주 100주년은 양국의 좋은 관계와 협력을 더 증진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장 선생의 둘째며느리 뽀완조 씨는 “시아버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 모두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장**

감보자 꽃

서미숙(인도네시아)

아파트 정원에 붉은 감보자 꽃잎
외할머니 댁 시골 담장에 둘러서 있던
봉선화 생각이 난다

사과 과수원 한쪽 귀퉁이에서
부끄러운 듯 수줍은 입술로
방긋 방긋 나를 맞아주던

싸리 울타리 아래 줄지어 서있던 너를
쫓그려 앉아 바라보다
떨어진 꽃잎을 고무신에 주워 담던

행여 비바람에 꺾일까
밤새 뒤척이던 마음을
늦게 온 애인처럼 너는 알았는지

귀뚜라미 밤새워 울던 날
빨갭게 연등을 켜고
서울내기인 나를 배웅하던 너

지금은 먼 나라로 떠나와
울타리 아래 서있던 너를 생각하며
감보자 꽃잎을 만지고 있다 **창**



100년 만에 빛 본 한국 첫 로마 유학생 기도문

“무사히 공부 마치게 해 달라”... 협심증으로 숨져 사제 꿈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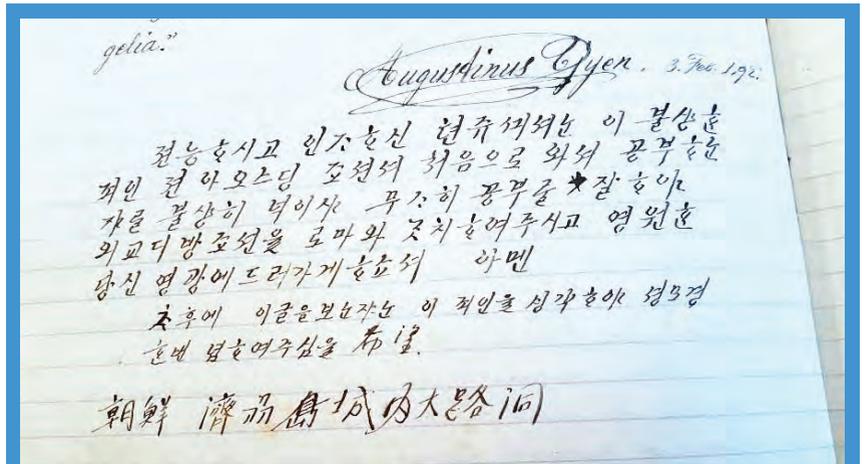
1919년 말 식민지 한국의 청년 두 명이 이탈리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이들의 가슴은 장차 사제가 되어 한반도에 가톨릭 복음을 널리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대구대목구 성유스티노신학교 학생인 두 사람의 이름은 전아오(18세·제주)와 송경정(19세·대구 달성군), 세례명은 각각 아우구스티노와 안토니오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톨릭 교세를 넓히려는 현지인 성직자가 필요하다는 교황청 뜻에 따라 사제 교육을 받고자 로마 유학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1920년 1월 로마에 도착해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알현했다. 교황은 이들에게 “한국의 훌륭한 사제가 되길 기도한다”며 격려했다. 한국인 신학생이 로마로 유학을 온 것도, 교황을 알현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들은 교황청 설립 우르바노대에 진학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송경정이 결핵에 걸려 1922년 4월 한국으로 돌아간 데 이어 5월에는 전아오마저 협심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송경정도 1923년 5월 숨을 거뒀다.

이백만 주교황청 대사는 최근 전아오가 우르바노대 입학 직후 쓴 자필 한글 기도문을 100년 만에 대학 자료실에서 찾아냈다. 전아오는 이 기도문에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천주께서 조선에서 공부하려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무사히 공부를



한국인 최초의 로마 신학교 유학생 전아오가 쓴 자필 기도문

마치게 해 달라”고 빈 뒤 “차후에 이 글을 보는 자는 이 죄인을 생각해 성모경(성모송) 한번 암송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우르바노대의 모든 입학생은 ‘주님 뜻에 따라 충실히 학업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이 기도문은 서약서 작성 두 달 뒤 개인적으로 덧붙인 것이다. 비첸초 비바 우르바노대 신학원장은 “의무적으로 쓰는 서약서 외에 모국어로 별도 기도문을 쓴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송란희 역사문화부장은 올 6월 학술지 ‘한국교회사 연구’에 게재한 논문 ‘첫 로마 유학 신학생 연구’에서 전아오 관련 기록을 소개했다. 1923년 발행된 우

르바노대 교지 ‘알마 마테르’에는 전아오를 추모하는 기사가 4쪽에 걸쳐 실렸다.

전아오는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했기에 동료 신학생들로부터 ‘베이비 전’이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한국과 가족을 매우 사랑했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해 즐겨 말했다고 교우들은 회고했다. 고국의 가족에게 편지를 자주 쓰지는 않았는데, ‘로마에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교우들은 “그가 학업에 매진하도록 두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도직에 대한 열정’이었다”며 “모국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전성훈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푸드 코트로 파고든 중국의 북한 식당

사드 · 대북 제재 ·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이자 활로 모색

그도의 불황을 겪는 중국의 북한 식당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 코트로 파고들어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존 북한 식당은 공연 무대를 갖춘 넓은 홀에 방도 여러 개 있는 대형 음식점 또는 주점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호기심과 향수 때문에 몰려들면서 호황을 누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징(北京)의 한인 최대 거주지인 왕징(望京)의 북한 식당 또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에다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고객은 물론이고, 북한 식당을 찾는 고객 자체가 급감해, 경영 사정이 벅장 끝에 물리게 됐다. 이미 베이징 내 일부 북한 식당은 문을 닫았고 사실상 개점 휴업인 곳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찾아가던 주중 북한대사관 앞 북한 식당 또한 점심 2시간 동안 우리를 포함해 두 팀이 손님의 전부였다. 1~2층을 운영하는 대형 식당인데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다. 북한 여종업원들 또한 장사가 워낙 안돼서 그런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왕징의 대형 북한 식당도 저녁 공연 시간을 20여 분 정도로 대폭 단축했으며, 오후 7시에도 고작 4~5개 테이블만 채울 정도로 썰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베이징 푸드 코트에 입점한 북한 식당

중국 푸드 코트 북한 식당의 미역 조개탕

진정된 지난 5월 새로 문을 연, 한 북한 식당은 유동 인구가 많은 빌딩 1층의 대형 푸드 코트에 입점해 각종 다른 음식 판매대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이 식당 여종업원들은 가슴에 북한 인공기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북한 대표 메뉴인 평양냉면, 비빔밥, 김치, 명태 자반 등을 판다. 그중에서 미역 조개탕, 김치 소고기탕, 평양 된장탕 등을 추천 메뉴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혹한다.

카운터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알림 벨을 주고 기다리게 한다. 벨이 울리면 취식대로 가서 전표를 주고 음식을 받아온다. 다 먹은 뒤에는 식기를 다시 갖다 줄 필요 없이 그냥 두고 가면 된다.

미역 조개탕을 시켜봤다. 대개의 북한 식당과 달리 매우 깔끔하면서도 점심 식사에 걸맞게 세트 메뉴로 꾸며 놓았다.

미역 조개탕에 밥 한 공기, 오이지 등으로 구성된 3가지 반찬이 한 쟁반에 나온다. 조개에 미역을 넣고 맵게 끓여 해장에도 그만이다.

북한 여종업원은 필자가 한국인임을 알고 “밤 10시까지 영업하니 와서 식사와 함께 대동강 맥주를 곁들여 마시면 좋다”고 권유한다. 이 식당 바로 옆에는 이집트 음식, 스테이크, 베이징식 구운 오리 등을 파는 수십 개 식당이 즐비한데, 유독 이곳에 손님이 끊이지 않아 이미 입소문을 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 식당이 운영난에 놓이자 통할 만한 핵심 메뉴를 앞세워 푸드 코트로 진출한 듯하다”면서 “북한 여종업원들은 성실해 영업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심재훈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그동안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잘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제9기 OKFriends 봉사단의 미션 수행기



제9기 OKFriends 봉사단이 9월 19일 온라인으로 팀별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시**베리아의 페치카 최재형 선생은 맨손으로 돈을 벌며 연해주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한인이 되었지만,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쳐 자녀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조국에 사랑을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애국심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그분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박볼미르 단원)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대령을 이제야 알게 되어 그동안 제 관심과 지식이 많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대령의 활약상은 책과 만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신의 부모 명예보다도 인권과 동포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모습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손영은 단원)

“창피하지만 ‘광복 75주년 특집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를 보고 재외동포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저를 반성하며,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OKFriends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장효은 단원)

“어릴 적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는데, 2017년 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 한국인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가 관심이 생겨 태국 대학교로 유학을 왔고, 휴학 기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코리아-소외된 사람들 돕는 한인들’을 보니 그 대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신채진 단원)

지난 8월 28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제9기 OKFriends 봉사단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미션을 수행했다. 과제는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러동포 등 지역별로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모국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사례 영상을 찾아 시청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단원 58명 가운데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마다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당찬 각오도 내비쳤다. 정의인 단원은 “재미동포 김영옥 대령과 같은 사례를 널리 알리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서진 단원은 “재러동포 최재형선생과 같은 분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의 성과는 없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구성된 OKFriends 봉사단은 2012년 출범한 이래 재외동포와 내국인의 상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6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잃다(lost) / 잊다(forget)

‘잃은 도끼나 얻은 도끼나 일반’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없어진 물건이나 새로 생긴 물건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잃은’ 대신 ‘잊은’이란 단어를 쓰면 완전히 뜻이 달라 집니다.

‘잃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서 그것을 갖지 아니하게 되다’,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와 이별하다’ 등의 뜻이고, ‘잊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다’, ‘일하거나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본 지 오래되어서 얼굴도 잊어버렸다”라고 쓰면 됩니다. ‘잃다’와 ‘잊다’이 뜻을 혼동해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이다(hold, engage) / 벌리다(widen, parted)

“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 복순이가 시집가고 삼 돌이가 장가가요~” 남성 4중창단 블루벨스가 1963년에 불러 인기를 모은 손석우 작사·작곡 ‘즐거운 잔치날’입니다. 요즘도 기쁜 일을 맞아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렸네’는 잘못 쓰인 말입니다. ‘벌리다’는 ‘돌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란 뜻이어서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란 의미의 ‘벌이다’를 쓰는 것이 맞지요. “잔치 잔치 벌였네 무슨 잔치 벌였나”가 어법에 맞는 노랫말입니다.

‘벌리다’는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우르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란 뜻도 있고, ‘벌이다’는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등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오른쪽 방향 열쇠

1.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날. 10월 9일.
3.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 줄.
5. 단체의 반대말.
7.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8. '정상에 ○○하다', '신기록에 ○○하다', '무한○○'
10. 서울 동쪽의 큰 문. 정식 명칭은 '홍인지문'이다.
12. 1년을 봄·여름·가을·겨울의 넷으로 나눈 것. '가을은 독서의 ○○'
13. 모자라는 것을 채움.
15.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베르사유○○', '강화도○○'
16.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17.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목. 한강에 이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18.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한국은 서울, 미국은 워싱턴, 중국은 베이징, 일본은 도쿄.
20.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움직임. '경찰은 시위 ○○자를 체포했다'
22. '우리의 ○○은 통일, 꿈에도 ○○은 통일'
23. 연필, 지우개, 공책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
25. '고려 ○○ 왕건', '조선 ○○ 이성계'
27.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제를 맺음. 올해는 한국과 러시아의 ○○ 30주년이죠.
28.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또는 그 자리.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뜻하기도 한다.
30. 한국의 나라 꽃.
31. 네 번이 길이가 모두 같고, 두 쌍의 마주 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며, 두 대각선이 중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 아래쪽 방향 열쇠

1.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 있는 반도.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
2. 새나 곤충이 하늘을 날 때 이것을 펴조.
3. 물건의 무거운 정도. 중량.
4.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는 날. 10월 3일.
6. 겨울 추위를 참고 견디는 풀. '○○초'
7.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갓의 무늬.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나 범죄 수사 등에 쓰인다.
9. 전신을 이용한 통보. 예전에는 급하게 소식을 알릴 때 우체국에 가서 이것을 이용했음.
11. 군인의 계급. 준장→소장→중장→○○
12.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둬. 또는 그런 약속.
14. 충주와 청주의 앞 글자를 따서 부르는 행정구역 명칭. 1896년 남·북도로 나뉘었다.
15. 우주의 만물을 만든 신.
18. 경기도 도청이 있는 도시. 갈비와 통닭으로 유명하다.
19. 이롭게 씌. 노래 '잊혀진 계절'을 부른 가수 이름.
21. 겨울에 잡아 열린 명태
22. 서울 남산을 상징하는 상록수. 송편을 찰 때 이 나무의 잎을 바닥에 깔죠.
23.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정규 기관. '초등○○', '중○○'
24.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직품과 직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26. 할아버지와 할머니.
27. 들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손으로 하는 대화.
29.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하나로 이어져 가랑이가 없는데 아래웃, 주로 여자가 입는다.

▶ 2020년 9월호 정답

상	봉		개	성		추	석	
형		신	방		감	기	경	
문		문		호		경	의	
자	판	기		주	장		수	선
		자	동		구	관	조	
가	공		조	조		상	판	
	휴			선	친		문	
삼	일	운	동		목	로	주	점
촌			생	선	회		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과서에 재외동포 수록방안 협의

재외동포재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9월 25일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 재외동포 수록방안 협의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우성 이사장, 오영훈 기획이사, 김봉섭·김주용 전문위원, 감사실장을 포함한 전 부서장, 연구소통부원이 참석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성기선 원장, 조용기 부원장, 한혜정 교과서교육과정 본부장, 피교철 홍보실장과 2019년 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용역에 참여한 책임연구자 서울대 윤여탁 교수와 자문위원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교육과정과 재외동포의 이해’란 주제 아래 국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수록해 내국민의 재외동포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6일 두 기관은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



재외동포재단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9월 25일 제주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교육 현상으로서의 재외동포’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고와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 교육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학당재단과 ‘교육 자료 공유’ 등에 협력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과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세종학당재단과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세종학당재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과 김채영 교육사업부장,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 윤문원 사무총장, 최윤희 학당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스터디 코리안,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내 온라인 교육 자료 공유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글학교·세종학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세종학당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콘텐츠와 한글학교의 교원 역량이 강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0월 15일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됨으로써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 환경이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 제고 연수

재외동포재단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10월 16~17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국내 초·중·고 교사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연수를 개최했다. 일선 교사 대상으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 초·중 교사 30 명이 참가했다.

참가 교사들은 재외동포의 역사와 주요 인물들의 활약상 등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생생 토크(Talk), 교사 간 분임토의 등을 통해 교육 정보와 연구 자료 공유 방안을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서 시도해볼 만한 효과적인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첫 연수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에서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고 교사 대상 연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재외동포재단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주최로 10월 16일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국내 초·중·고 교사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연수'가 열리고 있다.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다각도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잊혀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우리나비)

2020년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올해 들어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도서가 다수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잊혀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 문영숙의 눈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그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책이다. 항일투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삶을 더듬어보자.



13인의 재일한인 이야기

다카쓰끼 야스시(보고사)

역도산, 마쓰다 유사쿠, 서승 등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과 한국 근현대사에 영향을 끼친 13명의 이야기를 엮었다. 3가지 주제로 나눠 역사 안에서 재일한인의 면모를 되새겼던 순간을 정리하였다. 제1장 '반

도의 원풍경'에서는 재일한인들이 각기 지닌 재능으로 어떻게 모국과 거주국에 기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제2장은 '다국적 문화의 주역들', 제3장은 '투쟁과 좌절'이라는 주제 아래 이들의 활약상과 분투기를 담았다.



Your House Will Pay

스티브 차(에코 프레스)

아프리카계 미국 여고생이 1991년 3월 16일 로스앤젤레스 상점에서 살해되었다. 한인 상점 주인이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총격당한 것이다. 이는 이듬해 4월 발생한 LA 폭동에서 시위대가 한인 상점들을 습격한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스티브 차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흑인과 한인의 갈등 뿌리를 추적했다. 2020년 제40회 LA타임스 도서상 미스터리·스릴러 부문 수상작으로 뽑혔다.



K종이접기 세계화는 새 한류 창조 문화로,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서양보다 앞선 동양 삼국(한국·중국·일본)의 종이문화를 살펴보면, 문·벽·천정 등에 종이를 사용한 나라는 있습니다만 방바닥에까지 종이(장판)를 사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렇듯 생활 깊숙이 가장 우수한 닥종이를 다양하게 활용한 세계 제일의 종이문화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더불어 'K종이접기(Korea Jongie Jupgi)' 또한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훌륭한 전통문화 유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민속이며 홍익이념이 담긴 종이접기 모태인 고깔을 접어 소원을 빌고 머리에 쓰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또 그 고깔을 한 번 더 접어 종이배를 만들어 소망을 담아 시냇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많이 접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며 지혜지라는 별명을 가진 딱지를 접어 꿈따먹기 놀이를 하고, 방패연과 종이비행기를 접어 희망을 담아 하늘에 날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문화 말살과 한국전쟁 등의 격동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우수한 종이접기 문화를 제대로 전승 발전시켜 오지 못하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 부지불식간에 종이접기는 일본의 오리가미(Origami)를 통해 서양으로 알려져 일본이 종이접기 종주국인 양 알려지며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자국 종이접기 문화인 오리가미의 발전을 지원하고 해외 보급에 힘써온 결과 현재 구글 번역 프로그램에서 한글로 종이접기를 치면 영어·스페인어·아랍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어가 'Origami'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종이접기 창작 작가와 예술가를 꿈꾸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종이접기 기술로 과학 산업개발 등에 이바지한 과학자, 공학자들도 종이접기를 오리가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서 창작된 예술작품과 과학



노영혜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이사장

기술산업으로 창조된 독자적인 종이접기 기술을 자국어로 말하고 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자국 문화의 정립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접기 예술을 옹호 '오리가미'라고 하는 일본어로만 부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종이접기 부활 재창조 운동을 1987년부터 주창하고 'K종이접기'라는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저는, 우리의 태권도가 일본 가라테를 물리치고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Taekwondo)라고 불리듯이, 우리 종이접기가 일본의 오리가미를 극복하고 종이접기(Jongie Jupgi)라고 불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다짐하며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예술시대에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는 문화 창조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평화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야 합니다, K종이접기 문화가 그 높은 문화의 힘과 근원이 되고 창조력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는 지혜와 평화를 상징하며, 종이접기는 수학적이고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K종이접기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작년 10월에는 재외동포재단과 종이문화재단이 K종이접기 문화를 통한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K종이접기 세계화는 새 한류 창조 문화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외동포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종이접기 문화가 또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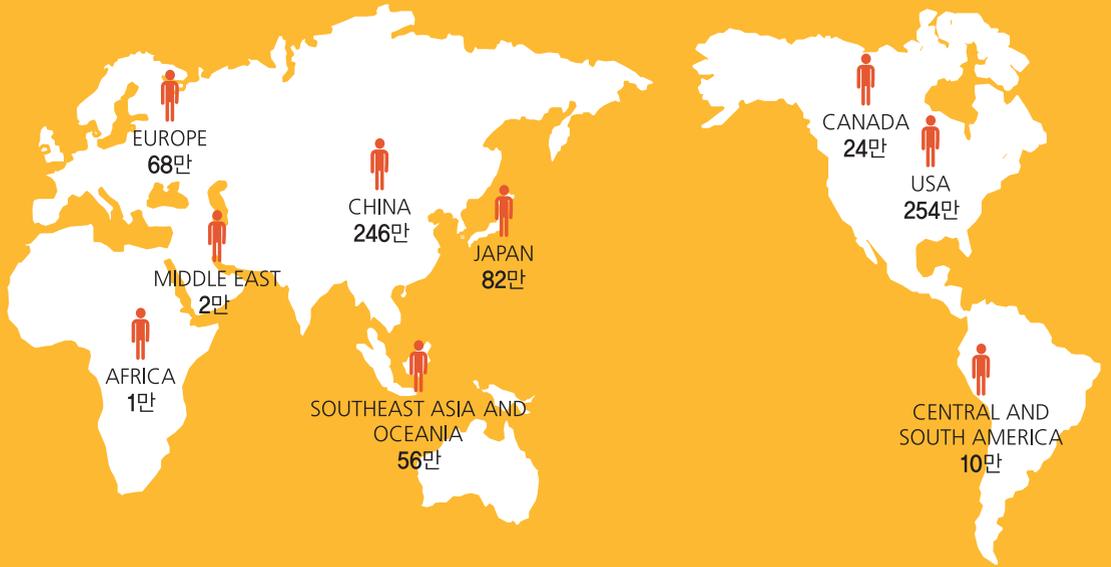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